

독도 바다를 휘저어 돌아온 숨비소리

해녀박물관 '제주해녀, 독도에 가다'특별전...1~8월31일

등록 : 2010년 06월 30일 (수) 18:22:52
최종수정 : 2010년 06월 30일 (수) 18:22:5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서도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주 잠녀의 숨비소리가 남아있다. 기억 속에 한반도 바다 지도를 물 속까지 모두 그리고 남을 그녀들의 흔적이 전시장으로 옮겨진다.

제주해녀박물관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제주해녀, 독도에 가다'특별전을 연다.

지난해 5월 제민일보 잠녀기획팀과 울릉도와 독도를 돌며 훑었던 잠녀들의 기억은 그대로 역사다.

독도에 배를 묻은 잠녀는 없지만 반세기 가까이 지킴이 역할을 했던 잠녀들의 존재감은 사진 속에서도 생생하다.

제주잠녀들이 1953년부터 독도에 들어가서 물질 작업을 했던 사실과 실제 살고 있는 주민(김신열씨)으로서의 역할은 독도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가장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살기 위해...' 섬을 떠나 섬으로 간 그녀들의 숨비소리는 그래서 더 길고 구슬프다. 물이 귀해 제대로 씻는 일을 생각도 못했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 절벽을 기어올라 갈매기알을 구했다. 지금은 누가 돈을 쥐도 못할 일들이었지만 낯선 독도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일을 마다할 수는 없었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고단했던 기억밖에 없다"(박옥랑 할머니·77·1953년 독도 입도) "습관처럼 내년에는 안 오쿠다하는 말을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독도였다"(홍순화 할머니·89·1955년 독도 입도)했다.

물질을 하지 않으면 멀리 바다를 보며 우는 일이 많았다던 그 때 잠녀들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펼쳐진다.